

빛 독촉·추심, '회생' 검토해 볼만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연락과 그들의 위임을 받은 추심업체의 압류·추심과 관련된 압박이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한 경우 충분히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추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회생개시신청을 고려해 볼 만하다. 회생개시신청이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

항, 제3항, 제593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므로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나 경매법원의 경매절차도 중단된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무효가 된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추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다시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채무자에 대해 보전처분명령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전처분명령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592조). 위 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시키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법원의 명령에 기해 변제가 불가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과 함께 위 명

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변제 독촉을 중단하기도 한다.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동반하여 변제를 종용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직접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발령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채권 추심에 대한 연락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인에게 직접 독촉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방면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금융·경제 교육'이라는 자산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증권사에서 자산관리(WM)를 받는 초고액 자산가 A씨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의뢰하려 한다. A씨는 같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B씨의 아이가 지난 방학에 WM에서 짜준 커리큘럼으로 금융·경제교육을 받은 뒤,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상속'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 공부나 투자 공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증권업계에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가 업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효과노릇을

하는 부문은 WM 파트다. 특히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의 자산 배분, 상속·증여, 세금, 자녀교육 문제 등을 전담하는 업체나 파트를 뜻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기자의 이목을 끈 건 '자녀 교육'이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경영할 수 있는 회사 승계 수업만 받으면 되는 게 '금수저 쥔 자녀'의 삶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수능 공부'가 아닌 금융·경제교육을 따로 받는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어른이 되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뒤에야 관심을 가져볼 법한 개념들을 일찍이 접한다는 건 분명 귀중한 경험이다. 실물 재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금수저 아이들이 지닌 기회이자 자산 아닐까.

반면 한국 금융·경제교육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험생이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택한 비율은 2023년 기준 1.1%에 불과하다. 물론 시험을 위해 배운 경

제 상식이 실생활에 접목되려면 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수업시간에서조차 '경제'를 접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다행히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유튜브·박곰희 같은 경제 유튜버들을 통해 어려운 경제 공부도 쉽게 접근하는 '어린이와 어른이' 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만 기댈 순 없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리딩방과 온갖 피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유튜브만 보고 실물 경제에 달려드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이들을 위해 금융감독원부터 금융업계까지 힘을 합쳐 각종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상은 고무적이지만, 금융교육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범국민 금융교육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시작해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48년생** 사방이 깜깜하니 곧 새벽이 온다. **60년생** 재물은 들어오지만 바로 나가야 할 돈. **72년생** 돈을 빌려 주변 반드시 차용증을 받자. **84년생** 집안 경사에 기쁨이 두 배가 된다.

37년생 한번 마음먹은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49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61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3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8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38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50년생** 오늘은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2년생** 빗내서 빗을 갠다. **74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다. **86년생** 강을 건너겠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

39년생 괴로운 일인 듯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5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63년생** 가족의 행복은 화목에서 시작한다. **75년생** 부지런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87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40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52년생** 유래 통쾌 상쾌한 하루. **64년생** 길고 짧은 것을 꼭 대비야 알겠는가. **76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 남의 이혼문제에 간섭은 조심. **88년생** 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 찬밥신세이니 노력을 하도록.

41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 하도록. **53년생**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 **65년생** 재혼은 초혼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 **77년생** 버는 일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해야 한다. **89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42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내게는 유리. **54년생**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있다. **66년생** 오늘의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78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견뎌보자. **90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43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55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웃는 게 좋다. **67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79년생**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라. **91년생** 실력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44년생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도록. **56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남겨 두자. **68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야. **80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 **92년생** 부동산 관련 일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4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7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69년생** 남의 말은 잘해야 사물을 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1년생** 조합을 이루려니 생각의 충전이 필요할 것. **93년생** 여러 이야기 보다는 평소 공부를 해서.

46년생 뱀띠의 도움으로 계약을 무사히 체결. **58년생** 손품에 뒀던 배가 웃는 손조로 운 하루. **70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따르다. **82년생** 검은 것과 흰 것이 섞이는 것도 삶이다. **94년생**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면 견제를 받게 된다.

47년생 게으름은 익숙한 일도 망친다. **59년생**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어찌 혼자 가는 여행이다. **71년생** 조심해라 침묵이 구슬수를 예방. **83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다. **95년생** 과해질 때 잠시 침묵으로 숨을 고를 필요가.



김상회의 4계 커피와 인생살이

삼계탕을 먹고 나서는 커피를 마실 것이다. 인생살이를 살펴보고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연과 역사가 있고 다양한 커피의 향이 있듯 각각 팔자에 향기가 있음을 느낀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한적한 공원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행복해진다. 커피는 음료 이상의 문화가 되었다. 인기 있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시는 걸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단다. 커피는 추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볶은 커피 원두를 갈아서 여과지에 담고 물을 부어서 내리는 커피를 드립 커피라고 한다. 핸드드립이라고 부르는 커피다. 콜드브루는 원두를 찬물로 오랜 시간 추출하는 커피다. 긴 시간 우려내 부드러운 느낌이고 쓴맛이 덜한 게 특징이다. 에스프레소는 진한 이탈리아식 커피다. 높은 압력으로 순식간에 커피를 추출하는데 씹쓸하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 연하게 마시는 커피다. 어떤 커피든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 취향과 감성에 따라 선호하는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에 빠져드는 것 같다. 오늘은 초복 경진庚辰 일이다. 진辰 글자 안에 을목乙木 재財가 들어있다. 목이 재가 되면 먹을 복이 많다. 을목은 풀잎 채식이 포함되니 황기 대추를 많이 넣은 삼계탕은 맛이 기가 막힌다. 남자 팔자에 재가 없으면 마누라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정에 관심이 없다. 재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똑똑하면 장가도 잘 간다. 아버지는 내 밥이다. 아버지가 못났으면 내 밥이 없는 것이다. 마누라가 똑똑하면 그 집은 일어나고 어빙하면 돈 못 번다. 재 일진에는 음식 먹고 싶고 외식하고 싶다. 재는 음식이니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즈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즈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2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9	6	2	7	8	
8								1
2		1						
			8			1		5
9	4			6				
					7			
						5		7
5								4
7	1	8	5		2			6

9	6			2				3
			3					8
		2		4		7		
6							7	
		9				3		
7								2
	1		5		8			
8				7				
5		4					6	7